

소리 음악 무용 통해 질병 치유

명상치유 공연예술 및 심포지엄 개최

5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예술공연장서

세계 무형문화재 공연도

명상의 심신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공연예술로 선보인다

소리와 음악, 무용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공연이 마련된다. 아시아태평양 공연예술 네트워크 'APPAN(Asia 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이하 에이팬)'이 준비한 'APPAN-명상치유 공연예술 축제와 심포지엄'이 바로 그것이다.

에이팬 한국본부(회장 이선욱)와 조계종 총무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이기도 한 이번 축제에서는 인도의 구티야람, 일본의 노, 티베트의 전통불교의식음악, 캄보디아의 업살라, 중국의 북경 오페라,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식무, 한국의 선무도와 선무·범패 작법·가야금병창·승무·설위설경·비나리·판소리 등을 선보인다.

2일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명상과 치유공연예술'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에이팬 산하 국제회장, 전현수 박사, 전세일 박사 등이 명상과 공연예술의 치유력에 대한 기초논문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명상과 치유공연예술'에 관한 심포지엄1에서는 '힌두 사원 전통 의식무용과 음악' '일본 전통 궁중극 노'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통의식무' '범패 작법' '티베트 전통 불교의식음악'에 대한 논문이 발표된다.

2일 오후 3시~5시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도의 '쿠티야람', 한국의 전예주 씨가 선보이는 판소리 '심청가', 일본의 전통 궁중극 '노', 한국의 동회 스님이 선보이는 '범패작법무', 덴진 집파 스님이 선보이는 티베트 불교의식음악,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한국 이광수 씨의 비나리가 첫 번째 공연을 장식한다.

같은 날 저녁 7시~9시에는 '쿠티야람' '노' '티베트 전통 불교의식음악'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중국의 '타이완 오페라', 캄보디아의 궁중무용 '업살라', 인도의 전통 무용, 한국의 선무용과 선무도가 공연된다.

3일 오전 9시부터는 각국의 명상과 치유공연 예술에 관한 심포지엄II가 열린다. 여기서는 캄보디아 '업살라' 중국 오페라, 승무, 가야금, 선무도, 설위설경(設位設經), 비나리, 판소리, 춤명상 등을 조명한다. 특히 이순후 박사가 '선무의 한의학적 고찰'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3일 오후 3시~5시 공연에는 한국 조부연 선생이 선보이는 설위설경, 캄보디아 '업살라' 선무도 등이 무대에 오른다. 주목받는 순서는 '성금련(인간문화재)선생이 작곡한 '가야금병창-법성계'의 조연 무대이다.

마지막 공연은 3일 저녁 7시에 각국을 대표하는 '쿠티야람' '노' '티베트 불교의식음악' '선무용과 선무도' 등이 장식한다.

이번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선욱 회장은 "앞으로 불교계 대학에서 선무치유무용과가 개설돼 그곳에서 결핍 없이 선무의 치료효과를 규명하고 선무를 전수하고 싶다"며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한 선무치유 효과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내 일생의 꿈"이라고 밝혔다.

에이팬은 아시아 27개국 유네스코 위원국에 설문조사를 내보내서 추천을 받아 유네스코 NGO로 만들어 진 단체이다. 현대인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각종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명상'을 제안하고 공연으로 정신세계와 명상을 표현하고 있다. (02)391-6502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5월 2~4일 'APPAN-명상치유 공연예술축제'에 선보이는 공연들. 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매방 '승무', 이선욱 '선무', 인도네시아 전통의식무, 중국의 '타이완 오페라'.

김인숙 '구슬정원'展, 29일까지

불교 여성 개발원 김인숙 원장이 산호 비취 조개 진주 등으로 직접 만든 장신구를 선보인다.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4월 24~29일 개최되는 '구슬정원'에서 비취, 산호, 진주, 옥 등으로 알록달록 화려함을 자랑하는 구슬꽃이 관객들을 반긴다.

이번 전시회는 김인숙 원장이 2003년 제1회 구슬목걸이 이야기, 2005년 5월 구슬꽃 이야기에 이어 세 번째 여는 구슬 전시회이다.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지난 20여 년간 김 원장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비취, 진주, 산호, 호박, 칠보 구슬로 만들었다. 김인숙 원장은 1회 전시회의 수익금을 재가연대·우리는 선우 등의 불교계 단체들에, 2회 전시회의 수익금을 여성 불교 발전을 위해 희사한 바 있다. (02)2238-7666



자연산호, 골동 비취 범.

강지연 기자

불교문예출판부 '봉축시집' 펴내

불교문예출판부가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시집>을 펴냈다.

봉축시집이라는 특성에 맞게 <불교문예> 상임고문인 오현 스님의 시 '사랑'에서부터 청화 스님의 '연꽃이 보낸 물결' 수완 스님의 '좌탈입망' 원담 스님의 '꽃은 저도' 효림 스님의 '빨래' 해관 스님의 '오월' 등을 스님들의 시를 비롯해 오세영 시인의 '꿈' 나태주 시인의 '사랑은 그런 것이다' 이은봉 시인의 '연탄대' 공광규 시인의 '흙집 사리' 등이 실렸다.

특집 코너로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의 봉축소시집을 실어 소소한 재미를 제공한다.

조계종 문화부에서 지원받아 만들어진 이번 <봉축시집>은 무가지로 배포된다. (02)923-3112

강지연 기자

수완 스님 시 음반으로 제작

"스쳐 지나가는 세월의 잔영만큼 나의 삶 나의 노래는 긴 그림자 드리우네. 아직도 열만큼 시간의 잔을 비워야 할지 영겁에도 변하지 않을 내 터전의 숨결을 어린 가슴으로 다독이는 오늘은 제비꽃." -오늘은 제비꽃-

수완 스님(현대불교문인협회 회장)의 시 10편이 노래로 번신했다. 수완 스님의 시와 작곡가 진우(시 노래풍경 회장)의 곡이 만나 하모니를 이룬 '오늘은 제비꽃' CD가 나왔다.

이번 음반에는 타이틀 곡 '오늘은 제비꽃'을 비롯해 '포행길에서 만남' '낙엽, 그리고 바람' '미궁' '꽃밭을 세웠어요' '길이 되어 흐르는 강' '우리가 하나일 때' '불면' '일출' '천도' 등 10곡이 담겼다. 노래는 작곡가 진우와 김명준씨가 불렀다.

강지연 기자

금박과 전통문양의 화려한 조화

단청장 정성길 개인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5월 12~18일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기능보유자 정성길씨가 5월 12~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실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기외에 금박으로 전통문양을 그려 넣은 작품인 '연꽃' '달마도' '승무' '12지'를 비롯해 단청문양 위에 청룡이나 봉황을 그린 '거북금초청룡도' '봉황

도' 등도 이색적이다. 6세기 말 문양을 화려한 채색으로 되살린 '6세기 말'이나 '수월관음도' '연화머리조' '사신도청룡'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단청에서부터 고구려 단청문양, 고색단청, 삼베에 고분금박처리법 등 다양한 단청기법을 소개한다. (03)2868-5898

불교평론

BUDDHIST REVIEW

현대불교가 발행하는 계간 <불교평론> 2006년 봄호(통권 2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불교평론>을 정기구독하시면 창간호부터 23호까지 6년간의 모든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불교평론' 합본 CD를 드립니다.

특집

바람직한 불경 번역과 현대적 소통모델 찾기

번역은 아무나 하나 ----- 박성배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 박중린
리즈 데이비스와 팔리경전회의의 성과 ----- 황순일

기획연재

불교인을 위한 그리스도교 이야기 ----- 오강남
기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불교 ----- 정용도

자동이체 정기구독 방법

- <불교평론> 고객센터(02)2004-8211~2로 전화 주시고 상담원에게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자동이체 정기구독자로 등록됩니다.
- 구독료는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에 1만원씩 이체됩니다.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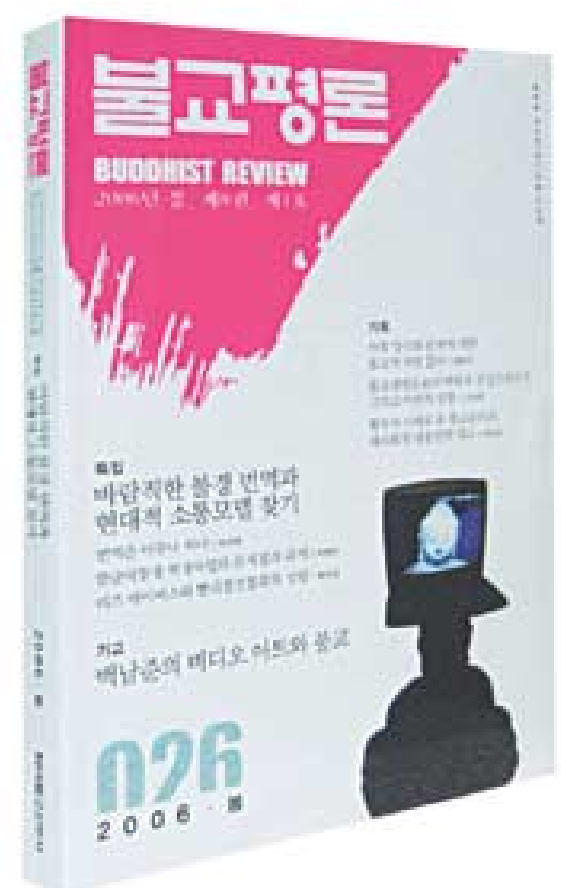
사회 양극화문제에 대한 불교적 처방 없나 ----- 정천구
천성산 살리기 그리고 비판적 성찰 ----- 이정호
황우석 사태로 본 불교윤리의 대사회적 대응전략 재고 ----- 허남결

논단

공극적 실재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물리학적 관점 ----- 김성구
떠오르는 장례문화 수목장, 문제점은 없는가 ----- 조동섭

계좌 입금 정기구독 방법

- 1년을 구독단위로 선납 4만원을 계좌 입금하시는 방법
- 계좌 은행(입금후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 038-25-0008-365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불교평론 구독 신청 접수 : 전화 02)2004-8211~2 / 팩스 02)737-0697